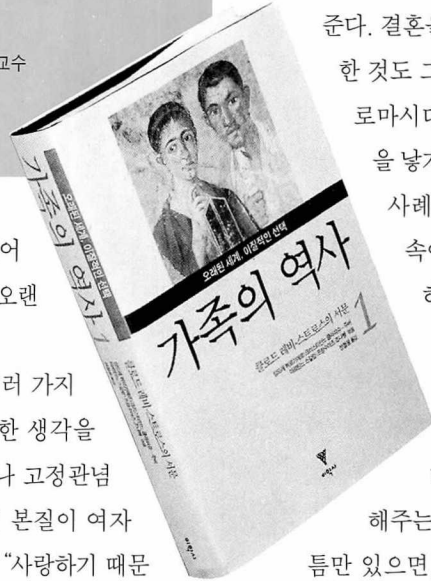


《가족의 역사 1》

인류학 · 역사학 공동 노력으로 가족 고정관념 깨

앙드레 뷔르기에르 외 지음 | 정철웅 옮김
이학사/A5신/470면/23,000원

김응중 | 충남대 사학과 교수



중세 서양의 귀족 남자는 대체로 자기보다 신분은 높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했다. 결혼이 신분 상승의 한 수단이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사실이 못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일찍부터 외삼촌 집에서 자랐으며, 심한 경우에는 외숙모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도 했다는 점이다. 왜 외삼촌(외숙모)과 조카의 사이가 유별났던 것일까? 나는 역사책에서 이 사실을 접하면서, 그 이유를 단순히 생각했다. 친삼촌은 아무래도 아버지의 형제여서 아버지 못지 않게 엄한 데 반해 외삼촌은 어머니의 형제여서 조카에게 부드럽게 대했을 테니 그랬을 거라고 말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조카와 외삼촌의 관계는 각별하지 않은가?

가족이 진화했다는 이론 거부해

그런데, 《가족의 역사 1》에 나오는 설명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레비-스트로스를 위시한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근친상간의 금지라는 보편적인 금기 때문에 결혼은 친족관계라는 테두리 밖에서 이뤄진다. 한 남자는 자신에게 여자 형제나 딸을 제공하는 다른 남자를 통해서만 아내를 얻을 수 있으며, 여자 형제나 딸을 준 사람은 그 대가로 상대 가족으로부터 여자를 받는다. 이같은 기본적인 구조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은 남자 형제들로, 여자를 교환하는 주체는 바로 그들이다. 이들 장래의 외삼촌들과 조카의 특별한 관계는 결혼 구조의 근간을 형성하는 근친상간 금지 규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견 독특해 보이는 외삼촌-조카 관계는, 인도-유럽어에 외삼촌을 지칭하는 특

정한 용어가 있다는 언어학적 사실에서도 그 오랜 보편성이 확인된다.

이 책은 그밖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소박한 생각을 심화시켜주며,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무너뜨린다. 결혼의 본질이 여자의 교환이라면,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순진하며 예외적인가를 말해준다. 이미 멜라네시아의 원주민들도 결혼의 목적은 시동생과 처남을 얻는 데 있다고 공언하지 않았던가?

이 책의 공동 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비판하는 것은 진화론이다. 그들은 인류의 가족이 모권제에서 부권제로, 원시잡거에서 일부일처제로, 핵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진화했다는 등의 유사 과학적인 이론들을 거부한다. 실제로, 핵가족은 산업 사회에 가서야 시작되는 현상이 아니라 중세 유럽에서도 이미 지배적인 가족 구조였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해서도 밝혀졌다. 나아가 고대 사회의 전형적인 가족 구조 역시 핵가족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핵가족을 근대적인 현상이라고 구분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핵가족은 근대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서구적이지도 않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핵가족이 지배적이지 않았을까. 혹시 우리의 전통주의자들이 핵가족은 서양 것이요 대가족이야말로 우리 것이라고 구분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편견일 뿐이다. 서양의 사례이긴 하지만, 산업 사회 이전에는 신랑 신부의 부모 네명 가운데 한명만 생존해 있었다고 하니, 결

혼한 젊은 부부가 부모를 모시려고 했더라도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가족에 대한 순수·배타주의 무너뜨려

이 책은 인류학과 역사학의 학문적 공동 노력의 결실로서, 다양한 결혼 풍속을 보여준다. 결혼을 여자의 교환이라고 풀이한 것도 그렇지만, 원시시대도 아닌 로마시대에 호르텐시우스가 자식을 낳기 위해 카토의 부인을 빌린 사례를 읽으면서 야만적인 풍속이라고 일축하는 것은 성급하며, 독서의 목적에서도 벗어난다. 오히려 이런 다양한 사례들은 우리의 고질적인 순수주의와 배타주의를 허무는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틈만 있으면, “가족이 무너진다”거나 “도덕이 땅에 떨어진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완고하고 편협한지를 확인하기 바란다. 이 어려운 내용의 책을 훌륭하게 옮겨 준 역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중세와 근대를 다룬 2권과 3권의 출판을 고대한다. ■

김응중 교수는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프랑쉬 콩테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충남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아날학파》 《오늘의 역사학》(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는 《프랑스 혁명사》 《16세기의 무신앙 문제—라블레의 종교》가 있다.

다음은 고대 이집트의 결혼제도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다. “파라오 시대 이집트의 결혼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것은 경제적 교환이라기보다는 가족의 기억을 보존하는 세대를 잇는 것이었다. 그리고 배우자의 선택은 집단의 일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일이었다. BC 3세기의 민간에서 통용하는 문자로 기록된 한 사료에는 당시 화제가 된 파라오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족외혼을 통해 복수의 인척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라던 왕의 의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자 형제와 결혼하기 위해 딸과 그 어머니가 마침내 파라오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이다. 사랑과 관습이 정치적 목적을 누른 것이다.”

우리의 사유는 끊임없는 '번역'의 과정을 통해 다채로워진다. 근본주의자나 국수주의자가 아니라면 번역이 우리의 사유를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굳이 부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근대사가 번역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다음에야 번역이야말로 근대적 사유를 추동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점을 부인하기란 쉽지 않을 터다. 문자로 된 것만이 아닌 대부분의 제도들이 번역의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그것이 우리의 일상과 사유방식을 일변하는 데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그럼에도 자명한 것으로 여기고 사용하는 용어(또는 형식)들이 번역을 통해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사유와 삶의 형식들을 지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용어'와 담론이 '번역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자폐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쓰는 개념어는 서구에서 빌린 '굴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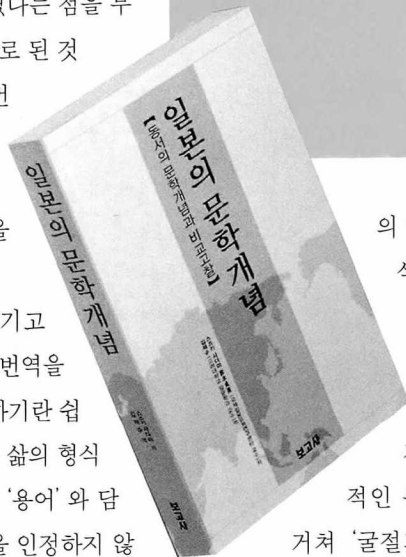
번역은 새로운 사유를 견인하는 힘이다. 그리고 '원본'(original)을 번역하는 힘은 그 사회(혹은 국가)의 정신적 또는 인문학적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척도다. 그런 까닭에 번역할 수 있는 힘을 잃은 문화는 이미 하나의 문화로서 생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번역은 문화의 생명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

기원에 대한 탐색을 게을리할 경우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을 원래부터 그러한,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상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문학'이라는 용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학이라는 말과 과거 우리가 사용했던 문학이라는 말은 과연 그 의미가 같은가 다르다. 다르다면 그 역사적·계보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어찌 보면 참으로 당연한 질문처럼 보일지 모르다. 그러나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어가 '서구적 근대'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하나의 '굴절어'라는 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그 용어

《일본의 문학개념》

일본의 근대 '문학' 개념의 굴절상 추적해

스즈키 사다미 지음 | 김채수 옮김
보고사/A5신/536면/15,000원



의 내포적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과 긴밀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일본에서 '문학'이라는 지극히 낯설고 이질적인 용어가 어떤 통로를 거쳐 '굴절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저술이다. 물론 '문학'(文學)이라는 용법은 동아시아문화권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또 쓰는 시나 소설 따위를 '문학'이라고 일컫는 게 과연 언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그 경로를 찾아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지은이는 중국 고전과 일본 고전 그리고 서양 텍스트에서 볼 수 있는 용례들을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깊이 있게 따지고 든다.

언어의 차이 무시하고 독자번역으로 일관해

이 과정을 거쳐 지은이는 문학이란 영어 'literature'의 번역어라는 사실과 이를 근거로 일본의 근대문학이 어떤 경로를 거쳐 형성됐는지 밝히고 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근대문학'이 아니라 '일본의 근대문학'이라는 점이다. "'일본근대문학'의 기원"이라는 제목이 달린 제10장을 보면 뚜렷이 알 수 있듯, 지은이는 일본의 근대문학이 서양의 문학개념을 번역했는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됐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일본 근대 '문학'의 계보를 추적하고 있는 이 책이 한국 근대문학을 연구하는 이들뿐만

정선태 | 수유연구실+연구공간 '너머' 연구원

아니라 '번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은 누누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난감하게도 '한국어로 번역된' 이 책은 한국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조차 제대로 읽히지 않는다. '휠덜린'을 '헤르다링'으로 표기하고 '디킨즈'를 '디켄즈'로 표기하는 것 등은 가벼운 착오로 봐 넘길 수 있다. 오식(誤植)이나 오역(誤譯)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를 아예 무시해 버리고 축자번역(逐字翻譯)으로 일관한 이 책을, 그것도 여러 사람이 제각각 읽고 옮긴 것임에 분명한 이 책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참으로 궁금하다. 일본어는 외국어다. 외국어인 만큼 한국어로 '번역'해야 우리는 읽을 수 있다. 그런 마당에 무슨 번역을 말할 수 있겠는가. ■

정선태씨는 서울대 국문과 및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수용 양상>을 펴냈고 <동양적 근대의 창출>을 번역했다. 현재 서울대, 한신대 강사다.

다음은 '문학'이란 개념을 정의내리기 어려운 이유를 밝힌 대목이다.

"'문학'의 정의의 어려움은 일본어라도 영어라도 첫 번째로 그 범주의 결정방법에 애매한 점이 있는 것, 두 번째로 때때로 다양한 가치관이나 사조에 의해서 배제나 내부의 순위 매김의 기준이 만들어져온 점,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 등에 원인이 있는 듯하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용하고 있는 협의의 '문학' 개념의 근본도 이와 같이 언젠가 어디에선가 만들어져 왔던 것임에 틀림없다."